

경제발전목표를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전망성있게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한 규 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내각은 나라의 경제를 책임진 경제사령부로서 경제발전목표와 전략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전망성있게 세우며 경제사업전반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경제발전목표를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전망성있게 세우는것은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의 합법칙적요구이다.

경제발전목표를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전망성있게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첫째로, 전망기간을 옳게 정하는것이다.

전망기간을 옳게 정하는것은 경제발전목표수립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전망기간은 두가지 방법으로 정할수 있다. 그 하나는 전망기간을 주기적으로 고정시켜 정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망기간을 경제발전의 일정한 단계의 과업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하는것이다.

전망기간을 주기적으로 고정시켜 정하는 방법의 기초는 고정재산의 갱신주기이다. 고정재산의 갱신주기는 이전에는 경제시대에 따라 어느정도 고정되어있었다고 할수 있으나 지식경제시대에는 점차 단축되고있다. 부문별로 볼 때에도 중공업, 경공업, 농업부문에서 고정재산의 갱신주기가 같을수 없다. 대체로 경공업부문에서는 중공업에 비하여 고정재산의 갱신주기가 빠르며 농업에서는 그 주기가 중공업과 경공업에 비하여 길다고 볼수 있다.

전망기간을 고정시켜 주기적으로 정하는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없다. 그것은 경제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변화 그리고 개별적부문들이 기술장비수준에서 차이를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실제로 전망기간을 고정시키면 그에 따르는 인민경제발전전략이나 전망계획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각이한 단계에서 나서는 과업을 완전히 포괄할수 없는것으로 하여 나라의 경제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다.

전망기간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단계적인 과업에 기초하여 그것을 앞으로 몇년동안에 수행할수 있을것인가를 타산하여 정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매 단계의 과업은 내용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다시말하여 매 단계에서 나서는 과업이 다르며 그에 따라 내세우는 목표와 수행방도도 달리 제기된다. 그런것만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단계적요구에 맞게 전망기간을 단계적으로 서로 다르게 정해야 한다.

나라의 전망적인 경제발전목표수립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서 전면에 나선 경제강국건설과업을 앞당겨 수행할수 있게 전망기간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경제발전목표를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전망성있게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둘째로, 목표지표들을 바로 선정하는것이다.

경제발전목표지표는 종합지표로 선정하되 주요현물지표와 금액지표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목표지표를 종합지표로 선정하여야 경제발전수준을 명백히 규정할수 있으며 사회적재생산의 다양한 력계와 종합적균형들을 개괄적으로 반영할수 있다.

우선 주요현물지표를 바로 선정하여야 한다.

주요현물지표를 바로 선정하여야 전망기간에 달성해야 할 주요현물목표와 힘을 넣어야 할 중심고리를 규정하며 재생산과정의 중요측면과 요소들사이의 경제적련계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해나갈수 있다.

주요현물지표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지표들과 중요한 지표들로 선정한다.

주요현물지표는 개별적지표의 전략적의의와 중요성정도를 잘 가려보고 포괄범위가 넓게 그리고 개괄적인 지표로 선정하는것이 합리적이다.

나라의 전망적인 목표수립을 위한 주요현물지표선정에서는 인민들에게 경제발전의 뚜렷한 전망을 안겨주며 경제발전전략이나 전망계획이 현행계획에 대한 규제적역할을 할수 있게 지표수와 개별적지표들의 포괄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나라의 전망적인 목표수립을 위한 주요현물지표는 인민경제의 주요부문별로 선정한다.

나라의 전망적인 목표수립을 위한 주요현물지표는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다. 나라의 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인민생활이 체계적으로 향상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새로운 경제과업이 나서는데 맞게 주요현물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금액지표를 바로 선정하여야 한다.

경제발전목표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사회적재생산의 총규모와 수준을 반영하는 금액지표로는 국내총생산액, 국민소득, 사회최종생산액 등을 선정할수 있다.

국내총생산액은 전망기간에 해결하여야 할 총적과제를 가장 포괄적으로 반영하며 사회적재생산의 구조와 균형을 밝힐수 있게 한다. 나라의 전망적인 목표수립에서 사회적재생산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종합적균형을 정확히 설정하는것은 나라의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나라의 전망적인 목표수립에서는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사이,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부문들사이, 지역들사이균형 등이 국내총생산액을 기초로 하여 설정된다. 나라의 전망적인 경제발전목표수립에서 국내총생산액지표를 선정하고 규정하여야 사회적재생산에서 종합적균형들을 정확히 설정하여 당의 경제전략에 예견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경제발전목표수립에서 사회적재생산의 개별적요소들과 측면들사이의 호상관계도 국내총생산액지표에 의하여 설정된다. 국내총생산액지표가 정확히 타산되고 규정되어야 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정확히 보장할수 있고 생산된 생산물의 공급과 류통을 합리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대책을 바로세울수 있다.

경제발전목표에서 국내총생산액은 현행계획들을 정확히 타산하기 위한 기초로 리용된다. 현행계획에서는 세부지표들의 타산에 기초하여 국내총생산액의 규모와 수준을 규정하는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되어있지만 국가경제발전전략이나 그 집행을 위한 전망계획에서는 당의 경제전략의 요구를 실현할수 있도록 국내총생산액의 크기를 먼저 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현행계획지표의 규모를 타산하는 방법이 적지 않게 리용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총생산액이 개별적인 계획규모를 타산하는 기초로 리용되게 된다.

국민소득은 나라의 전망적인 경제발전목표수립에서 리용되는 중요한 금액지표의 하나이다.

경제발전목표수립에서 국민소득은 국내총생산액과 함께 나라의 경제발전을 개괄적으로 특징짓는 종합지표이다. 국민소득의 규모와 그의 장성은 나라의 경제발전수준과 그의 발전속도를 반영하며 국민소득의 생산 및 분배구조는 나라의 경제구조를 반영한다.

나라의 전망적인 경제발전목표수립에서는 국민소득지표를 리용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가장 개괄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므로 국민소득지표를 경제발전목표지표로 선정하는것은 나라의 전망적인 경제발전목표수립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사회최종생산액은 사회적생산물의 최종적리용결과를 종합적으로 특징짓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부문별최종생산액지표로 구체화되는데 그것은 경제부문사이균형, 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 수요와 공급사이의 균형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기초로 된다.

경제발전목표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부문별경제규모와 수준을 반영하는 금액지표로는 부문별총생산액, 부문별순생산액, 부문별최종생산액 등을 선정할수 있다.

경제발전목표를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전망성있게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셋째로, 경제발전전망목표들의 수준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타산하는것이다.

경제발전전망목표를 과학적으로 타산하는 방법에는 인구 한사람당 기준에 의한 방법, 계차에 의한 방법, 경향성모형에 의한 방법, 요인모형에 의한 방법, 회귀모형에 의한 방법, 부문사이동적균형모형에 의한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인구 한사람당 기준에 의한 방법은 인구 한사람당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전망기간의 경제발전목표를 규정하는 방법이다. 전망목표타산에서 인구 한사람당 기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는것은 장기적인 사회경제발전단계를 포괄하는 국가경제발전전략이나 그 실현을 위한 전망계획의 특성과 관련된다. 경제발전전략이나 전망계획에서 목표가 전망기간의 절대적규모와 함께 인구 한사람당 수준에서 타산되고 평가되어야 경제장성규모와 그 발전수준을 정확히 반영할수 있다.

전망목표타산에 리용되는 인구 한사람당 기준은 전망기간의 마지막해에 도달하게 될 인구 한사람당 사회적생산수준(국내총생산액, 국민소득, 사회최종생산액, 주요현물지표별생산량)을 말한다.

인구 한사람당 기준은 기초년도 수준에 경제발전전략에 맞는 장성률을 곱하여 규정할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기초시기 도달된 경제발전수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인구 한사람당 기준은 기초년도수준을 고려하면서 당정책적으로 제시된 기준자료와 세계적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전망기간에 도달하게 될 최량적인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인구 한사람당 기준이 규정된 다음에는 전망기간 마지막년도의 인구를 추산하여야 한다.

전망기간 마지막년도의 인구추산은 인구장성속도지표에 의한 방법 또는 경향성모형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할수 있다.

전망기간 마지막년도의 인구 한사람당 기준에 추산된 인구수를 곱하면 전망목표가

규정된다.

계차에 의한 전망목표타산방법은 얻어진 시계열의 린접한 성분값의 차에 의거하여 앞으로 예견되는 동태계열을 추측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적용에서는 계차에 의한 발전결수를 타산하고 그것에 의한 보외값을 타산하는 방법으로 전망목표를 규정한다.

계차법은 전망목표수립을 위한 예측의 중요한 수법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계차에 의한 전망지표들의 예측은 그것이 지난 시기의 생산경영활동조건과 결과에 기초하여서만 진행되는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전망기간에 변하는 생산경영활동조건들과 새롭게 취해지는 경제적대책들을 정확히 반영하여 예측값들을 확정하는것이 합리적이다.

경향성모형에 의한 전망목표타산방법은 시간에 대한 연구되는 지표의 함수형태로 발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모형인 경향성모형을 작성하고 거기에 전망기간의 해당 년도값을 넣어 함수값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전망목표를 규정하는 방법이다.

경향성모형에 의한 전망목표타산은 지난 시기의 경제발전경향이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것, 경제발전에 작용하는 요인들의 영향을 시간에만 귀착시킨다는것, 전망기간에 경제발전의 심한 파동이 없다는것을 전제로 한다.

경향성모형에 의한 전망목표타산방법은 주로 전망기간이 짧은 경우에 많이 적용된다.

요인모형에 의한 전망목표타산방법은 사회적생산의 결과와 그 요인사이의 호상관계를 반영하는 요인모형을 리용하여 전망계획의 목표를 타산하는 방법이다.

요인모형은 생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연구되는 지표의 함수형태를 구성하고 그 발전상태를 나타내는 모형이다. 그러한 함수들은 생산요인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구성할수 있다.

회귀모형에 의한 전망목표타산방법은 과거의 경제실태를 반영하는 통계렬을 분석하여 요인지표와 결과지표들사이의 변화의 합법칙성을 찾고 그에 기초하여 전망지표를 예측하는데 회귀모형을 리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적용에서는 보간방정식에 기초하여 연구하는 지표의 보외값을 타산하는 방법론이 해결되어야 한다.

부문사이동적균형모형에 의한 전망목표타산방법은 선행년도들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원천으로 하는 기본투자의 진행과 그로 인한 고정재산의 증가 그리고 고정재산규모의 확대결과에 이루어지는 생산물생산규모의 장성이 전면적으로 반영된 부문사이동적균형모형을 작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전망목표를 규정하는 방법이다.

부문사이동적균형모형은 경제체계를 시간에 따라 그 상태가 끊임없이 변하는 동적인 체계로 관찰한다. 여기에서는 해당 년도의 경제상태와 선후년도들의 경제상태사이의 호상관련이 모형의 풀기과정에 규정된다.

부문사이동적균형모형은 기초년도들($t-1, t-2, \dots, t-n$ 년)의 경제상태에 관한 자료에 기초하여 $t, t+1, t+2, \dots, t+n$ 년도들의 계획을 작성할수 있게 하며 또한 $t+n$ 년도에 도달하여야 할 경제발전의 총적목표를 규정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t+n-1, t+n-2, \dots, t$ 년도들의 계획을 타산할수 있게 한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과 계획일군들은 전망적인 경제발전목표를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전망성있게 세움으로써 경제강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